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아리랑국제방송, <Survival Contenders> 제작현장

아리랑국제방송이 2011년도 새롭게 선보이는 '퀴즈쇼, 취업 서바이벌 프로그램 <Survival Contenders>'의 제작현장을 찾았다. 이번 녹화(4월 14일)는 1차 LG생활건강과 2차 한국GM에 이어 아리랑국제방송편이 진행됐다. 서바이벌 컨텐더스는 최근 젊은 이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우수 인재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하여 단계별 경쟁을 통해 서바이벌 형식으로 기업별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발과정은 1차 서류접수와 2차 면접까지 통과한 8명의 도전자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는 잡 코리아(Job Korea)를 통해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부터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직접 선발한다. 2차 면접에서는 해당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컨텐더스 제작진의 연출, 메인작가 등이 동반하여 서바이벌에 참여할 여덟 명을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선발된 여덟 명은 녹화에 참여해 4주에 걸쳐 퀴즈, 자유토론, PT, 미션수행, 심층면접 등을 거치게 된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우승자 1명은 해당기업 CEO의 최종면접을 거쳐 해당기업에 입사하게 된다.





컨테던스 녹화현장은 긴장감보다는 여유로운 분위기다. 아마도 이전의 두 개 기업의 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작방향이 잡힌 듯 보인다. 컨테던스 진행은 SBS, KBS 등에서 법률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했던 이영대 변호사와 기업체 영어면접과 신입사원 교육으로 활동한 바 있는 장엘리 동시통역사, 기업컨설팅업체 대표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김미남(P.J. Rogers) 세 명의 MC가 담당하고 있다.

리허설은 전체적인 음향장비나 카메라 이동, 프로그램 순서에 대해 점검하는 수준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진행자와 도전자들의 마이크 확인과 지미짱과 메인 카메라들의 이동 거리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리허설이 끝났다. 5분간의 휴식 후, 곧바로 본 녹화에 돌입했다.



도전자 여덟 명(박유진, 이승구, 강민주, 황지혜, 홍정윤, 권소아, 윤민식, 전슬지)은 대형 스크린 뒤에서 메인 무대로 등장한다. 도전자들은 계단을 내려와 결의에 찬 모습으로 본인들의 자리로 들어선다. 도전자들의 얼굴에서 리허설 때 찾아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맴돈다. 이제 본격적인 퀴즈 대결이 시작됐다.

1라운드는 문제당 30점으로 10문제를 랜덤으로 풀게 된다. 성우의 차분한 목소리로 첫 번째 문제가 출제되고 도전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2라운드는 주제별로 난이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서 도전자들이 많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라운드 퀴즈 결과에 따라 상위 다섯 명(강민주, 황지혜, 권소아, 윤민식, 전슬지)이 선발되고, 하위 세 명의 도전자가 패자부활전을 통해 경합을 벌이게 됐다.





2회차 진출에 성공한 다섯 명은 대기석으로 이동하여 남은 한 명을 기다리고 있다. 패자부활전이 시작되고 세 명의 도전자는 문제에 집중한다. 2라운드까지와는 달리 부저에 손이 가질 않는 도전자들. 아마도 탈락에 대한 긴장감이 손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내 부저가 울리고 5문제를 모두 풀면서 패자부활전이 끝났다. 최후의 한 명은 '박유진' 도전자가 차지했다.



패자부활전이 진행되는 동안 부조정실을 방문했는데, 도려 이곳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출연자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제작과정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서바이벌 컨테스터가 시청자에게는 정보와 재미를, 도전자들에게는 기업입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을 바란다.